

# 금융투자업 전망과 주요이슈 : 증권업

금융투자산업실장 신 보 성



# 목 차

KCMI  
KCMI  
KCMI

## I. 2011년 업무별 시장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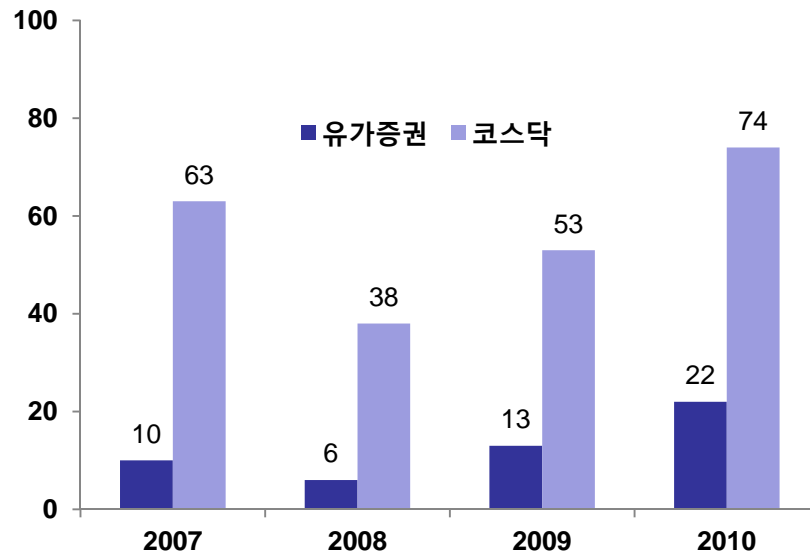
## II. 2011년 주요 트렌드

# 2011년 전망: IB시장 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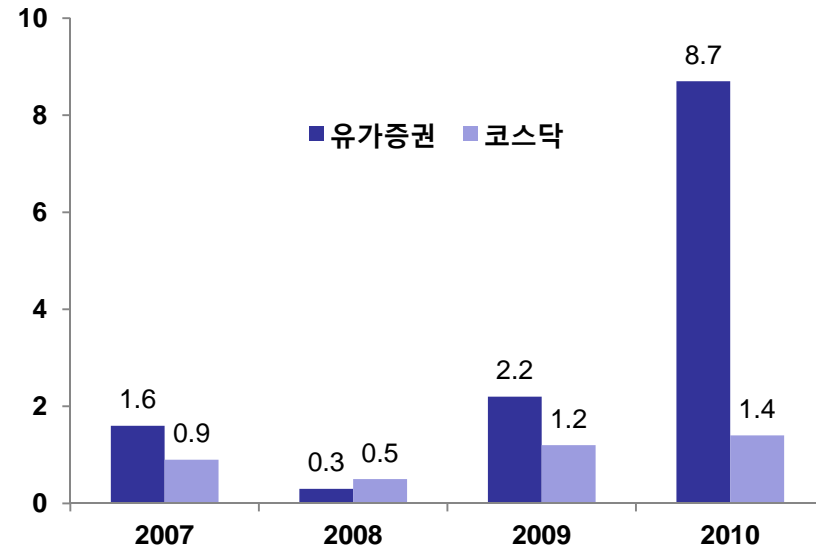
## ❖ IPO

- 2010년 IP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0.1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
- 2011년 IPO 규모는 지난 해보다는 적지만 평년수준을 웃도는 5~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(업계 추정)
  - 주식시장 활황
  - 삼성, LG, GS, 현대 등 대형그룹 Deal 다수 대기

IPO 건수 추이 (단위: 개)



IPO 규모 추이 (단위: 조원)



Source: KRX

# 2011년 전망: IB시장 [2]

## ❖ 회사채

- 2011년 회사채 발행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40~50조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 (업계 추정)
  -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일부 선제적 발행수요가 존재
  - 그러나, 많은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

## ❖ M&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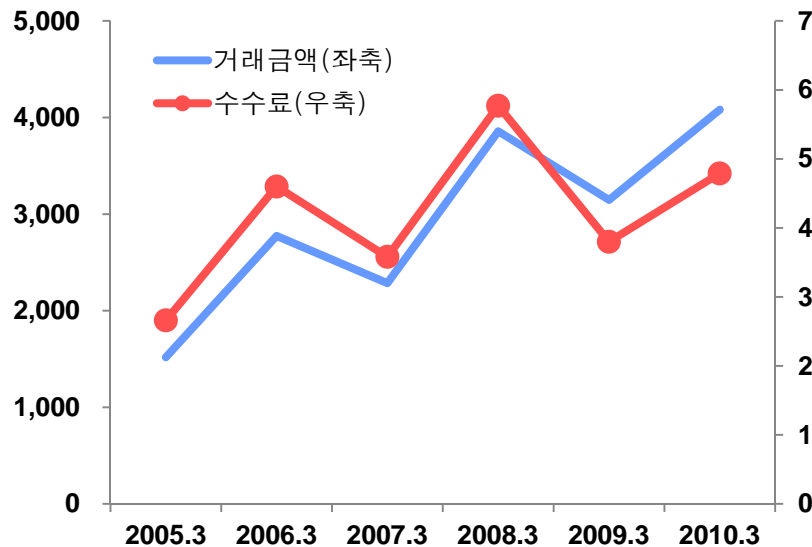
- 2011년 M&A시장규모는 지난 해(20조원)보다 늘어난 25~30조원에 달할 전망
  - 풍부한 유동성,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, 정부소유 지분 매각 등
  - M&A: 우리금융지주(6조), 하이닉스(2조), 대우조선해양(3조), 현대건설(5조), 경남은행(1.5조), 광주은행(1조) 등
  - 지분매각: 교보생명(2조), IBK은행(1.5조), GM대우(1.5조) 등
  - SPAC에 의한 중소형 M&A

# 2011년 전망: 위탁매매시장

## ❖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를 배경으로 위탁매매시장 규모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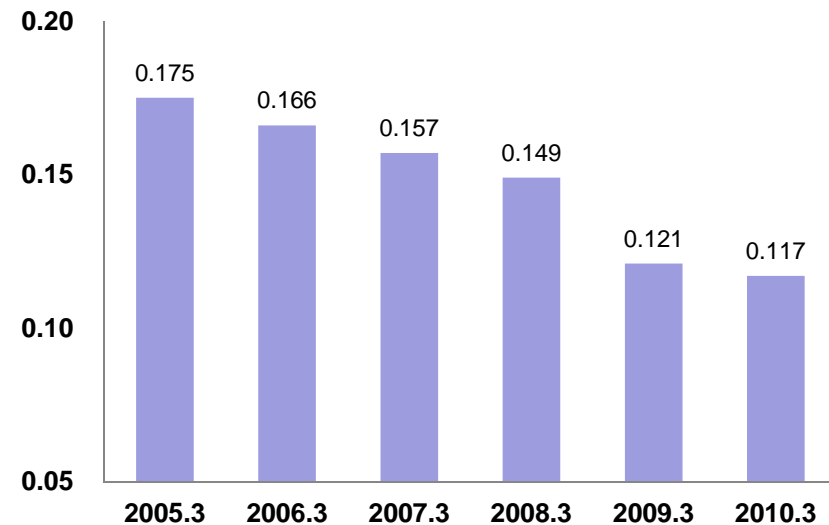
- 풍부한 유동성; 기업실적 개선; (-)실질금리; 낮은 PER, 환율하락 등에 기인한 외국인 투자 증가
- 위탁매매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수입 증대는 제한적
  - 개인 거래대금 급감 추세(2010년 전년대비 32% 감소), 수수료율 경쟁

주식 위탁매매 규모 및 수수료수입 (단위: 조원)



Source: FSS

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율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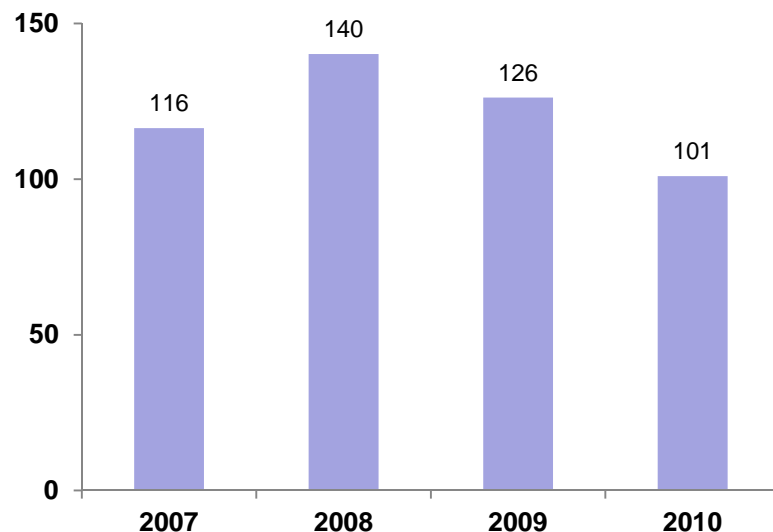


# 2011년 전망: 자산관리시장 (1)

## ❖ 주식형펀드 및 Wrap Account를 중심으로 시장규모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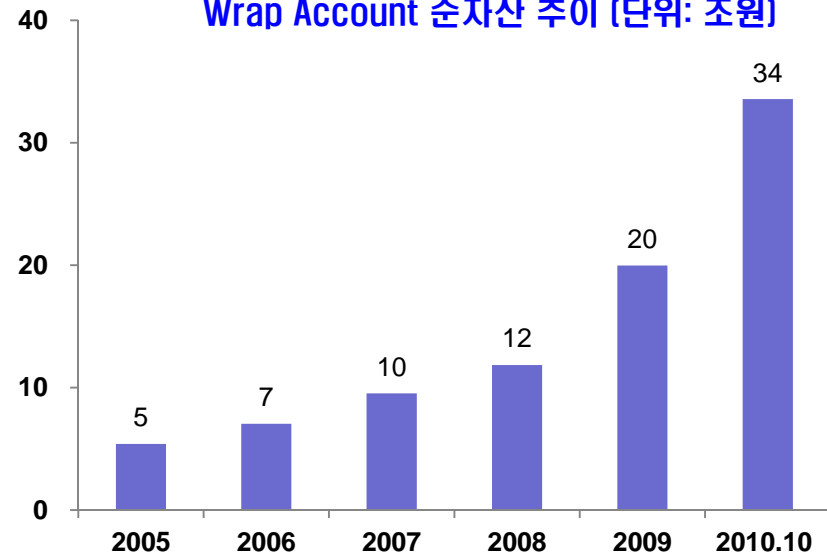
- 주식형펀드: 2년에 걸친 대량환매(36.3조)가 마무리되면서 2011년에는 순유입 전환 예상
  - 단, 금리상승 전망으로 채권형펀드, MMF는 순유출 예상
- Wrap Account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듯
  - 5개 대형사 순증 목표: 14.5조원

주식형펀드 수탁고 추이 (단위: 조원)



Source: KOFI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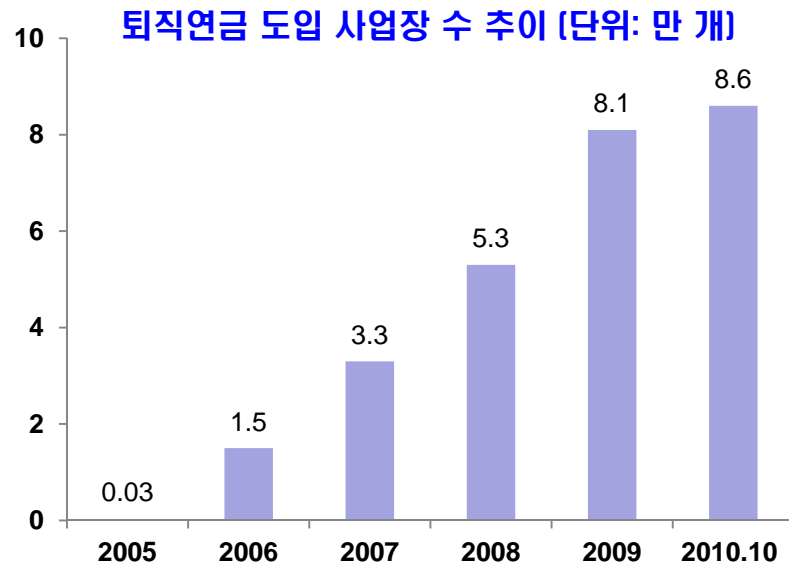
Wrap Account 순자산 추이 (단위: 조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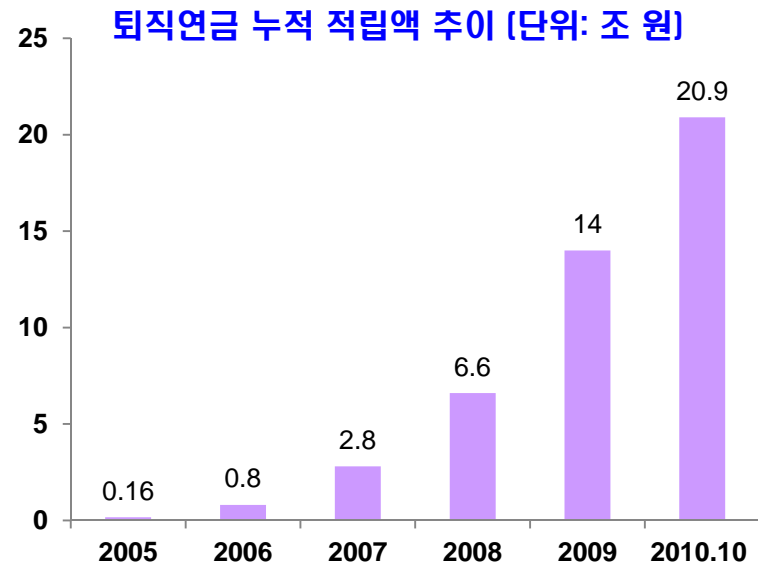
# 2011년 전망: 자산관리시장 [2]

## ❖ 퇴직연금시장 큰 폭으로 확대 전망

- 2010년 12월말 현재 누적적립금(추정치)은 26조원으로 20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
- 2011년: 지난해 대비 70% 이상 증가하여 40조원을 넘어설 전망 (업계 추정)
- 퇴직연금과 관련한 주요한 제도변화
  - 퇴직보험, 퇴직신탁에 대한 추가불입 금지;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;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등



Source: MOEL, FSS



# 목 차

KCMI  
KCMI  
KCM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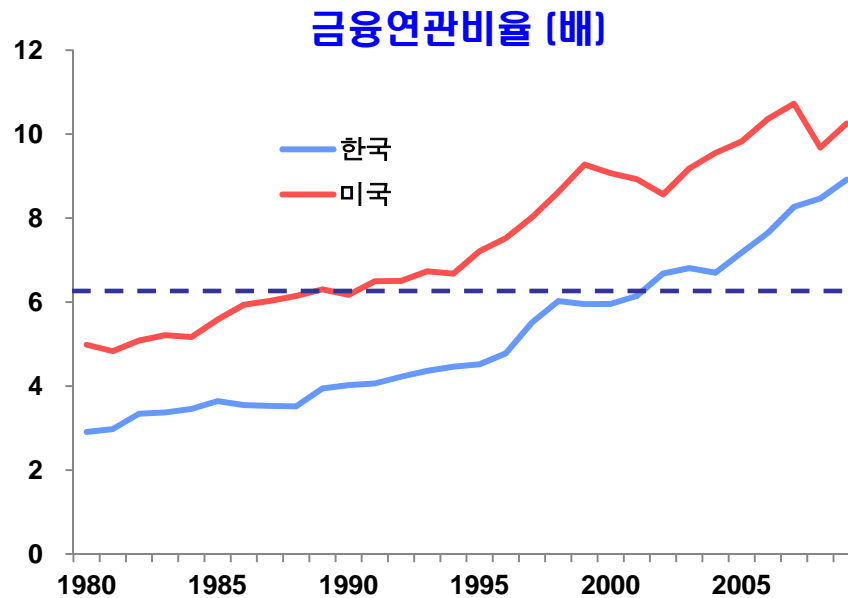
## I. 2011년 업무별 시장전망

## II. 2011년 주요 트렌드

# 2011년 트렌드 (1): 자산관리시장 확대

## ❖ 금융자산 축적을 배경으로 자본시장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 지속

- 우리나라 금융연관비율은 미국의 1980년대 후반, 1990년대 초반 수준에 이미 도달
  - 금융자산 축적과 risk appetite 변화는 밀접히 관련
- Demographic Factor: 우리나라 Baby Boomer 세대는 38~54세
  - 인구구성 측면에서 자본시장상품 수요 확대 여건 마련



Source: BOK, FRB

# 2011년 트렌드 (1): 자산관리시장 확대

## ❖ 자본시장상품에 대한 수요 변화 패턴

- 표준화 상품 → Low Risk 맞춤상품 → High Risk 맞춤상품
  - 공모펀드 → Wrap, ELS, ELD → 사모펀드(헤지펀드 등)
- 공모펀드 중심의 투자패턴이 최근 Wrap,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급속히 다변화 되는 추세

## ❖ 향후 자산관리시장의 성장세 지속

- 최근의 시장흐름, 금융자산 축적,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, 우리나라 자산관리시장은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

## ❖ 일부 제도개선이 병행될 경우 자산관리시장은 더욱 확대

- 정부는 사모펀드 규제 개선을 통해 헤지펀드를 활성화시킬 계획
  - 헤지펀드 활성화에 필수적인 Prime Broker 관련 제도 정비
- 금융자문업자 규제체계 정비 추진 (금융소비자법)

# 2011년 트렌드 (2): 해외진출

## ❖ Imbalance b/w Issuer & Investor Market

- 자산관리시장의 급속한 확대와는 달리 발행시장의 성장세는 활발하지 못함
- 투자자의 자산관리 욕구 충족 어려움 존재 → 해외진출 불가피

## ❖ 해외 투자자 네트워크 부재로 국내 대기업 관련 딜 소화 불가능

- 국내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시장 거의 전부를 해외 IB에 내주고 있는 실정

국내 IB Deal League Table (2010)

순위	IPO	해외채권 발행
1	한국투자증권	Deutsche Bank
2	Goldman Sachs	BoA Merrill Lynch
3	신한금융투자	BNP Paribas
4	Morgan Stanley	Citi Group
5	Merrill Lynch	RBS

Source: The Bell

# 2011년 트렌드 (2): 해외진출

## ❖ 성장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아시아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할 필요

- 아시아 신흥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 (2008년 기준)
  - 경제성장률: OECD의 5배, 전세계 평균의 2.6배
  - 총인구: 전세계 인구의 45%, 인구성장률: OECD의 3배
  - 국내기업의 신규 해외진출의 49.5%가 아시아 신흥시장을 대상
- 진출전략
  - Investor Market: 한국물 중심의 Sales & Brokerage → 현지물
  - Issuer Market: Middle Cap → Large Cap



# 2011년 트렌드 (3): 트레이딩 부문의 역할 증대

## ❖ 자산관리시장 확대는 트레이딩 부문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작용

- 고객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의 적시적 제공을 위해서는 트레이딩 부문의 역할이 필수적
- IB: Sourcing-Production-Sales
  - 자산관리 시장의 확대 → 트레이딩 부문 활성화 → Sourcing 능력 제고
  - 자산관리 시장의 확대는 향후 인수능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

## ❖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Prime Broker 역할 수행을 위해서도 트레이딩 부문의 역할이 필수적

- Securities Lending
- 헤지펀드에 대한 구조화상품 제공

# 2011년은 증권산업 구조변화의 원년

## ❖ Stylized Facts: 자본시장 성장과 함께 증권산업에서는 대형화, 전문화가 진전

- 금융자산 축적, 고령화 진전 등 자본시장 발전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, 그 동안 국내 증권산업에서는 구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
  - 증권회사 수가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동질적인 업무를 수행

## ❖ 그러나, 자본력 또는 전략적 초점에 따른 성과차이가 곧 드러나게 될 것

- 자본력에 따른 격차 확대
  - 자산관리, 해외진출, 트레이딩 → 자본력 없이는 불가능
- 전략적 초점에 따른 격차 확대
  - Issuer or Investor Market? Local or Overseas Market? Large Cap or Small Cap?
- 2011년을 기점으로 향후 몇 년 간 구조변화를 거치고 나면, 시장지배적 증권회사의 윤곽이 분명히 나타날 전망